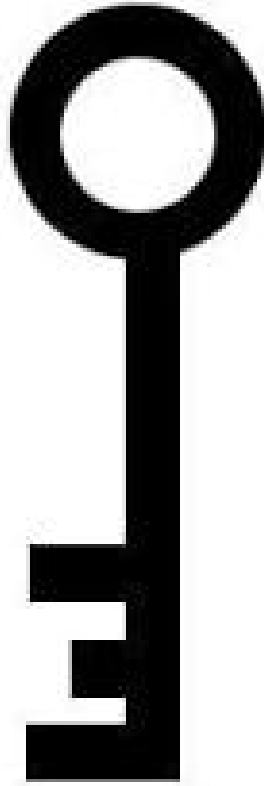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 헬렌 켈러



박광일의 [SECRET KEY]

고민하는
Point

[3월 교육청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2회)]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매력적 오답
오답률 5위	45%내외	11번	(문법) - 구개음화 [문법 지문 문항]	④번 선지
오답률 4위	50%내외	15번	(문법) - 사전(dictionary) 문항	⑤번 선지
오답률 3위	55%내외	44번	(문학) - 현대소설 문맥에 따른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항 -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⑤번 선지
오답률 2위	65%내외	30번	(경제) - 두 기업이 모두 혜택을 얻기 위한 ‘금리 스와프’ 조건 → [보기] 사례에 적용	③, ④번 선지
오답률 1위	75%내외	31번	(경제) - 금리 스와프의 개념 → [보기]에서 제시한 구체적 사례에 적용	③번 선지

[문학] 현대시 : 이상, ‘거울’ / 극 : 이근삼, ‘원고지’

[문법] 11번, 12번, 13번

[독서] 사회 지문 : 금리 스와프(지문 세부 설명) / 기술 지문 : 노드(학생 분석 예시)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약 45%) 예측] : 문법 11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									
③	중세 국어의 '모달다'는 어형이 바뀐 후에 구개음화를 겪었고 18세기 국어의 '잔디'는 어형이 바뀐 후에도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것이군.								
[선지판단]	<p>→ 이 선지는 지문에서 2개 정보를 조합하여 선지를 구성하였다. 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정보만 확인했다면 어렵지 않게 '모달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지문 2문단) '모달다 > 모질다' 역시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어형이 바뀐 예이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지문 3문단)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18세기에는 '잔디'의 어형이 '잔딤'였으므로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고 '잔딤'의 어형이 '잔디'로 바뀐 19세기에는 형태소 내부의 구개음화는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p> </div>								
[매력적 오답선지와 Killer-Point]									
④	방언에서 '형님'을 [성님]으로, '짜깁기'를 [짜집기]로 발음하는 것도 구개음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군.								
[선지판단]	<p>→ 아래에 제시한 지문 4단락의 근거만 확인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선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를 고른 학생들은 반모음 'ㅣ'의 개념이 온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반모음의 개념은 '문법 분석지' 참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지문 4문단) 방언에서 'ㄱ'과 'ㅎ'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ㅈ'과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도 구개음화의 일종으로 본다. '기름'을 [지름]으로 발음하거나 '힘'을 [심]으로 발음하는 현상이 그 예이다.</p> </div>								
[Killer-Point]	<p>→ 문법 지문은 정보가 병렬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지문도 그렇다. 또한, 병렬식으로 열거된 정보 각각에는 반드시 사례가 제시되며, 이 사례가 선지로 직접 연결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법 지문을 접했을 때 정확한 구조와 핵심정보, 그리고 각 사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지를 판단할 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다.</p> <p>[이 지문의 구성] : 개념 정보 + (병렬)정보의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문단] 방향 정보 파악</td> <td>중세국어의 구개음화, 현대국어의 구개음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문단] 병렬1</td> <td>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18C) (사례1) 디나다 → 지나다 (사례2) 내티다 → 내치다 (사례3) 모달다 → 모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문단] 병렬2</td> <td>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예외적 사례 (18C) (사례) 잔디(18C) → 잔디(19C)</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문단] 병렬3</td> <td>방언 : 'ㄱ', 'ㅎ' + 모음 'ㅣ', 반모음 'ㅣ' → 'ㅈ', 'ㅊ'으로 발음 (사례1) 기름 → [지름] (사례2) 힘 → [심]</td> </tr> </tbody> </table>	[1문단] 방향 정보 파악	중세국어의 구개음화, 현대국어의 구개음화	[2문단] 병렬1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18C) (사례1) 디나다 → 지나다 (사례2) 내티다 → 내치다 (사례3) 모달다 → 모질다	[3문단] 병렬2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예외적 사례 (18C) (사례) 잔디(18C) → 잔디(19C)	[4문단] 병렬3	방언 : 'ㄱ', 'ㅎ' + 모음 'ㅣ', 반모음 'ㅣ' → 'ㅈ', 'ㅊ'으로 발음 (사례1) 기름 → [지름] (사례2) 힘 → [심]
[1문단] 방향 정보 파악	중세국어의 구개음화, 현대국어의 구개음화								
[2문단] 병렬1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18C) (사례1) 디나다 → 지나다 (사례2) 내티다 → 내치다 (사례3) 모달다 → 모질다								
[3문단] 병렬2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예외적 사례 (18C) (사례) 잔디(18C) → 잔디(19C)								
[4문단] 병렬3	방언 : 'ㄱ', 'ㅎ' + 모음 'ㅣ', 반모음 'ㅣ' → 'ㅈ', 'ㅊ'으로 발음 (사례1) 기름 → [지름] (사례2) 힘 → [심]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홀수 화법/작문/문법 편(16p) 2019학년도 수능 문법 지문	
[2019 수능 문법 지문의 구조] 병렬식 : '개념 정보'와 '정보의 위치(구조)' 파악	
[1~2문단] 방향 정보 파악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국어사적으로 고찰]
[2문단] 병렬1	발 + 가락 → 발가락 - 중세 국어 : '발가락'에서 관형격 조사 'ㅅ' 탈락
[3문단] 병렬2	솔 + 나무 → 소나무 - 중세 국어 : '솔나무'에서 ㄹ탈락 (합성어를 이룰 때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탈락)
[4문단] 병렬3	이틀 + 날 → 이튿날 - 중세 국어 : 이튿날 → 이튿날 → 이튿날 (여기서 ㄷ은 ㄹ이 변한 것 X)

[오답률 4위(약 50%) 예측] : 문법 15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	
④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이르다 ² '와 '이르다 ³ '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군.
[선지판단]	→ 사전에 제시된 활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은 대부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불규칙한 형태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전에서는 용언의 활용정보를 제공할 때, 용언의 어간에 어미 '-어/아'가 결합된 형태를 먼저 제시한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이르다² ㉠(일러, 이르니) : '이르-' + '-어' → '일러' (어간이 바뀐 불규칙 활용)</p> <p>이르다³ ㉡(일러, 이르니) : '이르-' + '-어' → '일러' (어간이 바뀐 불규칙 활용)</p> </div>
[매력적 오답선지와 Killer-Point]	
②	'이르다 ² '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이르다 ² ㉡'의 용례로 '그는 동생에게 다시는 싸우지 말 것을 단단히 일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선지판단]	→ '그는 동생에게 다시는 싸우지 말 것을 단단히 일렀다'의 '이르다'는 '(...에게 ...을) 타이르다'의 의미로 '이르다 ² ㉡'의 용례가 아니다. 이 경우, '이르다 ² ㉡'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르다 ² ㉠'까지 함께 살펴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이르다² ㉠(일러, 이르니)【...에게...을】【...에게 -고】</p> <p>① 무엇이라고 말한다. ¶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p> <p>② 미리 알려 주다. ¶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알려 주었다.</p> </div>

⑤	'이르다 ³ '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이르다 ³ '은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선지판단]	<p>→ 사전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서술어 자릿수다. 이르다³의 경우, 주어와 [...보다]라는 부사어를 취하거나, 주어와 [-기에]라는 부사어를 취하는 2자리 서술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이르다³ ㉸ [...보다] [-기에]</p> </div>
[Killer-Point 1]	<p>사전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개념은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1) 동음이의어, 다의어 (2) 서술어 자릿수 (3) 용언의 활용 (4) 품사의 정의 (5) 복합어 (5) 어휘의 의미 → 예문 적용</p> </div> <p>① '이르다¹'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이르다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규칙 활용을 하는군. → 용언의 활용</p> <p>② '이르다²'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이르다² ㉠'의 용례로 '그는 동생에게 다시는 싸우지 말 것을 단단히 일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용언의 활용</p> <p>③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이르다¹'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군. → 품사의 정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 동사,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 형용사)</p> <p>④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군. → 용언의 활용</p> <p>⑤ '이르다³'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이르다³'은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서술어의 자릿수</p>
[Killer-Point 2]	<p>사전에 제시된 뜻을 예문에 적용하는 선지의 경우, 선지에서 제시된 뜻만 볼 경우, 유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에 제시된 뜻들은 다의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어휘에 제시된 모든 뜻들을 살펴보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홀수 화법/작문/문법 편(51p) 2016학년도 수능A/B

Q.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B 공통)

같이 (가치)

[1] [부]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2] [조]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 (가치- -) [동] [(...과)....을]

-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 함께하다①.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 / 평생을 같이한 부부
-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 함께하다②.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 / 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품사 판단**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2]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같이[2]①'의 뜻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같이[2]②'의 뜻을 함께 검토하여 더 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다면 실수할 여지를 없앨 수 있음.**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합성어, 파생어 판단**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서술어의 자릿수 판단**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 **유사 어휘**

답 : ②

[오답률 3위(약 55%) 예측] : 문학 44번 문항

[가장 적절한 선지(정답 선지)]	
③	'누이'에게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나'의 추측을 담고 있는 진술이다.
[매력적 오답선지와 Killer-Point]	
⑤	'누이'가 도시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나'의 짐작을 나타내는 진술이다.
[Killer-Point]	<p>항상 판독(선지 판단 독해)을 할 때는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한다.</p> <p>이 문항과 같이 소설에서 특정 구절(대화, 서술 등), 소재, 공간 등의 의미를 묻는 경우, 처음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구절 앞·뒤 맥락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이 문제에서도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도시를 향한 향거이겠지만, 두고 온 것들에게 보내는 저 눈빛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정리된다. 즉, 도시를 향한 향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누이의 눈빛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두고 온 것, 즉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고 추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출수 현대소설 편(52p) "삼대" (2017. 6월 모평) - '문맥으로 구절의 의미 파악'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 염상섭, 「삼대」 -

*조인광좌 :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문맥으로 구절의 의미 파악]

Q.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답 : 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홀수 현대소설 편(36p) “비 오는 길” (2019. 9월 모평) - ‘문맥으로 공간의 의미 파악’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뜨렸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문맥으로 공간의 의미 파악]

Q.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②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정이 드러나는 곳이다.
- ③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④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 ⑤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

답 : ①

[오답률 2위(약 70%) 예측] : 독서(경제) 30번 문항

[조건 판단]																					
[조건판단]	<p>[발문 주의] - 올바르게 짝지은 경우.</p> <p>→ 지문의 사례를 보면 기업 A와 B가 등장한다. <보기>의 제시된 ㄱ~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짝지어야 하므로, 하나를 기업 A, 다른 하나를 기업 B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p> <p>예) '기업 A가 ㄱ이면, 기업 B는 ㄴ이야.'라는 사고가 필요하다.</p> <p>지문의 <u>다음의 요건</u></p> <p>① 3문단 : A가 B보다 두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 + 한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유리함의 정도가 커야함.</p> <p>② 3문단 : A와 B는 자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보다 상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을 선호해야함.</p> <p>※ 비교 우위 - A가 B보다 고정 금리는 3%, 변동 금리는 1% 더 낮은 조건으로 차입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p> <p>① 고정 금리 방식에서는 A가 B보다 비교 우위 ② 변동 금리 방식에서는 B가 A보다 비교 우위</p>																				
[<보기>에 나타난 상황 정리]																					
[보기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ㄱ</th> <th>ㄴ</th> <th>ㄷ</th> <th>ㄹ</th> </tr> </thead> <tbody> <tr> <td>고정 금리</td> <td>4%</td> <td>4%</td> <td>6%</td> <td>6%</td> </tr> <tr> <td>변동 금리</td> <td>+1%</td> <td>+2%</td> <td>+4%</td> <td>+3%</td> </tr> <tr> <td>선호 방식</td> <td>고정</td> <td>고정</td> <td>변동</td> <td>변동</td> </tr> </tbody> </table> <p>[중요] ②번 조건인 '자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보다 상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을 선호해야함.'으로 선택지 ㄱ, ㄴ이 짝인 1번과 ㄷ, ㄹ이 짝인 3번을 바로 지웠어야 한다.</p>		ㄱ	ㄴ	ㄷ	ㄹ	고정 금리	4%	4%	6%	6%	변동 금리	+1%	+2%	+4%	+3%	선호 방식	고정	고정	변동	변동
	ㄱ	ㄴ	ㄷ	ㄹ																	
고정 금리	4%	4%	6%	6%																	
변동 금리	+1%	+2%	+4%	+3%																	
선호 방식	고정	고정	변동	변동																	
[적절한 선지(정답 선지) 판단]																					
[선지판단]	<p>② ㄱ-ㄷ</p> <p>①번 조건 충족 (O) : ㄷ이 ㄱ보다 고정 금리, 변동 금리 모두 유리 + 고정 금리 차이 2%, 변동 금리 차이 3%로 변동 금리 방식이 유리함의 정도가 큼</p> <p>②번 조건 충족 (O) : ㄱ은 고정 금리 방식 선호, ㄷ은 변동 금리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2번 조건 충족</p>																				
[매력적 오답선지와 Killer-Point]																					
[선지판단]	<p>③ ㄴ-ㄷ</p> <p>①번 조건 충족 (X) : ㄷ이 ㄴ보다 고정 금리, 변동 금리 모두 유리 but 고정 금리 차이 2%, 변동 금리 차이 2%로 유리함의 정도가 큰 방식이 없음</p> <p>-> 비교 우위에 있는 방식이 없으므로 ②번 조건을 따질 수 없음.</p>																				

④	L - ㄹ
[선지판단]	①번 조건 충족 (O) : ㄹ이 L보다 고정 금리, 변동 금리 모두 유리 + 고정 금리 차이 2%, 변동 금리 차이 1%로 고정 금리 방식이 유리함의 정도가 큼 ②번 조건 충족 (X) : L이 변동 금리 방식 ㄹ이 고정 금리 방식을 선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②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Killer-Point 1]	제시된 조건이 여러 개라면 가장 판단하기 쉬운 조건으로 일부 선택지를 제거할 수 있다. 꼭 모든 조건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Killer-Point 2]	[보기나 선지를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라!] 보기나 선지를 읽을 때도 지문을 읽을 때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ㄱ, ㄴ은 나머지는 모두 서로 같고 변동금리만 다르다는 것이, ㄷ, ㄹ도 나머지는 모두 서로 같고 변동금리만 다르다는 것이 눈에 들어 왔다면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

[오답률 1위(약 75%) 예측] : 경제 31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	
④	갑과 을이 금리 스와프를 통해 동일한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을이 갑에게 주는 이자의 고정 금리가 4.5%를 초과하지 않아야겠군.
[선지판단]	<p>1. 갑과 을이 금리 스와프를 통해 동일한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문단에서 고정 금리 간의 차이 - 변동 금리 간의 차이 = 최대 금리 감소분 - <보기>에서 고정금리간의 차이 4% - 변동 금리 간의 차이 1% = 최대 금리 감소분 3% - 동일한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A와 B 모두 1.5% 금리가 감소해야 함. <p>2. 을이 갑에게 주는 이자의 고정 금리가 4.5%를 초과하지 않아야겠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이 갑에게 주는 이자의 고정 금리가 4.5% 초과한 상황인 5%를 가정. - 5%라고 가정하면 갑은 4%로 빌려 5%로 을에게 빌려 주는 것이므로 1%의 금리 이득을 얻음. - 동일한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갑은 1.5%의 금리 이득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0.5%의 추가 금리 이득만 얻으면 됨. - 갑의 변동금리는 CD금리 + 2%이므로 변동금리를 CD금리 + 1.5%로 정하면 0.5%의 추가 금리 이득을 얻어 1.5%의 금리 이득을 얻은 것이 됨. - 을의 고정금리는 8%로 갑에게 5%의 고정 금리로 빌리는 것을 가정하면 3%의 금리 이득을 얻음 - 동일한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을은 1.5%의 금리 이득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1.5%의 금리 손해가 일어나면 됨. - 을은 CD금리 + 3%로 빌려 갑에게 CD금리 + 1.5% / 1.5%의 금리 손해가 일어나 총 1.5%의 금리 이득을 얻은 것이 됨 <p>→ 결국 4.5%를 초과하는 5%를 가정해도 갑과 을 모두 1.5%씩 동일한 금리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음</p>

[매력적 오답 선지와 교훈]	
③	값은 고정 금리 방식에서 비교 우위에 있고 올은 변동 금리 방식에서 비교 우위에 있군.
[선지판단]	<p>비교 우위의 개념은 5문단에 설명되어 있다. A가 B보다 두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할 때, 'A가 B보다 고정 금리는 3%, 변동 금리는 1% 더 낮은 조건으로 차입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금리 차이가 더 큰 고정 금리 방식에서는 A가 B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고, 금리 차이가 더 적은 변동 금리 방식에서는 B가 A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한다.'</p> <p><보기>에서 값이 두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하고 고정 금리 방식에서는 4% 우위, 변동 금리방식에서는 1%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더 큰 고정 금리방식에서는 값이 올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금리 차이가 더 적은 변동 금리 방식에는 올이 값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p>
[Killer-Point]	<p>비교적 ③번은 쉬운 선택지이다. 비교 우위의 개념이 지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선택지이다. 그런데도 ③번을 많이 선택한 이유는 정답 선택지인 ④번 선택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③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값이 금리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올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생각해보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니 그냥 ③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비문학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답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이나 상식은 지문을 읽을 때 참고할 만한 것이지, 선택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12][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구개음화

(1) 현대의 구개음화

- 개념 : 받침 'ㄷ, ㅌ(ㄸ)'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2) 중세의 구개음화

- 개념 : 어간 말음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경구개음인 'ㅈ, ㅊ'로 바뀌는 현상
- 특징 : 15세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임진왜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17,18세기에 보편화됨
- 예) 부터 → 부쳐 → 부처 / 텃디 → 천지 → 천지 / 슷뫼디 → 슷뫼지

2.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

- 개념 :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종류
 - 자립 형태소 :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혼자 설 수 있는 형태소
 - 의존 형태소 :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 실질 형태소 : 대상이나 동작, 상태의 실제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예) 승모는 잘 된 밥을 매우 빠르게 먹었다.

자립성 유무	자립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용언의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의미의 성격		
실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의 어간,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은규, 잘, 밥, 매우	되-, 빠르-, 먹-
형식 형태소(암기) (조사, 어미, 접사)		는, -ㄴ, 을, -게, -었-, -다

3. ㄴ 첨가

○ 개념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ㅀ'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맨- + 입 → [맨닙] / 색 + 연필 → [생년필]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버련]

○ 적용

① /홀- + 이불/ → [홀이불 → 홀니불 → 훈니불]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② /밭- + 이랑/ → [밭이랑 → 받니랑 → 반니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선택지 해설]

11. ③

정답해설 : 답은 ③이야. 먼저, ‘모딜다’의 경우는 2문단을 봐야해. 2문단에 의하면 ‘모딜다’는 18세기에 ‘모딜다>모질다’로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를 겪어서 어형이 바뀐 예시야. 즉, 어형이 바뀐 후 구개음화를 겪은 게 아니야. 다음으로, ‘잔디’의 경우는 3문단을 봐야해. 3문단에 의하면 18세기에 ‘잔디’라는 어형을 가진 단어가 19세기에 ‘잔디’로 바뀌었다고 했어. 그런데, 구개음화는 몇 세기에 일어났다고 했지? 그렇지, 18세기야. 근데, 18세기에 ‘잔디’라고 하면 ‘ㄷ’ 다음에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 대신 ‘ㅡ’가 왔잖아. 구개음화 환경이 아니야. 그런데, 19세기에 ‘잔디’가 되어서 ‘ㄷ’ 뒤에 ‘ㅣ’모음이 왔어.. 그럼 구개음화 환경이지? 하지만, ‘잔디’는 하나의 형태소잖아. 19세기에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잔디’가 된 거야. 즉, ‘잔디’는 어형이 바뀐 후에도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게 맞아.

[오답풀이]

①을 확인하려면 1문단을 봐야 해. 1문단에서는 ‘ㄷ, ㅌ’가 중세 국어에서는 ‘치조음’이었다가 18세기에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어. 즉, 중세 국어에서는 경구개음 ‘ㄷ, 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중세 시대 단어인 ‘턴디’와 ‘티다’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턴디’, ‘티다’로 쓰인 거야.

②를 확인하려면 2문단을 봐야 하고, ‘느티나무’의 형태소 분석이 가능해야 해. 먼저, ‘느티나무’를 형태소 분석하면 ‘느티 + 나무’가 돼. 그럼 형태소 경계는 어디와 어디 사이야? 그렇지, ‘티’와 ‘나’ 사이야. 그런데, 2문단에서 18세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고 했어.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지. ‘느티나무’는 현대 국어의 단어야. 그러니까 형태소 경계에서만 구개음화가 일어나. 즉, ‘느티’는 하나의 형태소이고, 현대에서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발음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느티나무]가 되는 거야.

④를 확인하려면 4문단을 봐야 해. 4문단에 의하면 ‘ㄱ, ㅋ’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ㄷ, ㅌ’으로 발음되는 것도 구개음화라고 했어. 이에 의하면, ‘형님’의 ‘형’이 ‘성’으로, ‘짜깁기’의 ‘깁’이 ‘집’으로 발음되는 게 구개음화라는 걸 알겠지!

⑤를 확인하려면 5문단을 봐야해. 5문단에 단서가 있거든. 먼저, ‘굳이’와 ‘같이’가 [구지], [가치]로 발음되는 것이 구개음화인건 맞지. 그리고 그 원인이 ‘ㄷ, ㅌ’의 조음 위치가 모음 ‘ㅣ’의 조음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자, 이제 단서를 찾아보자. 5문단에 4번째 줄을 보면 본래 구개음화란 모음 ‘ㅣ’와 반모음 ‘ㅣ’가 경구개음 근처에서 소리가 나서 ‘ㄷ, 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와 만날 때 경구개음인 ‘ㄷ, ㅌ’로 바뀌면 발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어. 이를 통해 ⑤가 맞는 말인 걸 알 수 있어.

12. ②

정답해설 : 먼저, 구개음화의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체언이나 어근 뒤에 조사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형태소 경계의 환경에서만 일어나. 즉, ‘ㄷ, ㅌ’로 끝나는 체언이나 어근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될 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홀이불’을 보자. ‘홀이불’을 형태소 분석하면 ‘홀+이불’인 걸 알겠지? 그럼, 일단 외관상으로는 ‘ㅌ’과 ‘ㅣ’모음이 있어서 구개음화가 일어날 것 같아. 하지만, 이 단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는 ‘이불’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불은 ‘잘 때 몸을 덮기 위하여 피륙 같은 것으로 만든 침구의 하나’라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야.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 대신 ㄴ 첨가가 일어나. 그래서 ‘홀+니불’이 되어버려. 그럼 그 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홀’이 ‘홀’이 되어 ‘홀+니불’이 되지. 그 다음에는 ‘ㄷ’과 ‘ㄴ’이 만나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혼니불]이 돼. 그래서 ②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야.

[오답풀이]

①의 ‘밭이랑’은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 ‘밭’과 ‘같이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 ‘이랑’이 합쳐진 것으로, ‘어근+어근’의 합성어야. 즉, 앞 어근이 ‘ㅌ’을 가지지만 뒤에 ‘ㅣ’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없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①의 선지는 맞는 말이야.

③의 ‘해돋이’에서 앞 어근인 ‘돋-’이 ‘ㄷ’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이’는 ‘몇몇 명사와 동사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야. 즉, ‘이’는 형식 형태소니까, ③도 맞는 말이지.

④의 ‘벼훑이’는 형태소를 분석하면 ‘벼+훑+ㅣ’가 돼. 즉, ‘훑-’과 ‘-이’의 사이는 형태소 경계가 맞아. 그리고 ‘이’는 ③의 ‘해돋이’에서 나왔던 ‘이’와 같은 것으로, 형식 형태소가 맞아! 그러니까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가 맞아.

⑤의 ‘묻히고’는 형태소를 분석하면 ‘묻-+ㅣ+고’가 돼. 그리고 이때, ‘-히-’는 사동 접미사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돼. 그런데, ‘묻-’의 ‘ㄷ’과 ‘-히-’의 ‘ㅎ’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지? 그렇지,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이 되고, 그 뒤의 ‘ㅣ’모음을 만나서 ‘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발음이 [무치고]가 돼. 즉, 이 단어는 받침 ‘ㄷ’과 접미사 ‘-히-’가 축약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 게 맞아.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관형절로 안긴문장

- 개념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 형성 방법 : 관형사형 어미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 종류 : 관계 관형절 /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p>예) <u>학교에 가는</u> 철수를 보았다.</p> <p>→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p> <p>→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p> <p>→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p>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p>예) 나는 <u>철수가</u>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p> <p>→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p>

2. 의존명사의 제약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자기 비가 {오는, *온, *올, *오던} 바람에 신발이 다 젖었다. → 의존명사 ‘바람’은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로 ‘-는’만 취한다. · 나는 고기를 {먹을, *먹은, *먹던, *먹는} 줄을 모른다. → 의존명사 ‘줄’은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로 ‘-(으)ㄹ’만 취한다.
‘조사’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을 떠난 <u>지</u>가 10년이 넘었다. → 의존명사 ‘지’는 뒤에 주격조사 ‘가’만 취한다. · 아이는 나를 보자 즐거워 어쩔 <u>줄</u>을 몰라 했다. → 의존명사 ‘줄’은 뒤에 목적격조사 ‘을/를’만 취한다. · 할머니는 눈을 감은 <u>채</u>로 그를 회상하셨다. → 의존명사 ‘채’는 뒤에 부사격조사 ‘로’만 취한다.
‘서술어’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거야 두말 할 <u>나위</u>가 있나? → 의존명사 ‘나위’는 ‘있다, 없다’와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를 서술어로 가진다. · 나는 그가 돌아온 <u>줄</u> 알았다. → 의존명사 ‘줄’은 ‘알다, 모르다’와 같은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를 서술어로 가진다.

3. 인칭대명사

- 개념 :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 종류

	단수	복수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2인칭	너, 자네, 당신, 그대	너희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이이, 이분	그, 그이, 그분	저이, 저분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누구	아무	저, 저희, 자기, 당신

4. 관형사

- 개념 :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언
- 종류

- ① 성상 관형사 :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 예 새, 흰, 순(純), 온갖
- ② 지시 관형사 :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예 이, 그, 저, 다른(他), 원
- ③ 수 관형사 : 양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 예 한, 두, 세, 첫째, 둘째, 셋째

5. 관형어(중요)

- 개념 :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언
- 종류

관형어의 실현 양상	예
① 관형사	상훈이가 새 옷을 입었다.
② 체언	유진이는 시골 풍경이 좋다.
③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도현이는 시골의 풍경이 좋다.
④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으)ㄹ’ 사용)	승모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 좋다.
⑤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학생인 네가 왜 이런 것을 갖고 있지?

6. 서술어의 자릿수

○ 개념 :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의 구성	예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함	주어 + 서술어 (자동사)	꽃이 피었다.
	주어 + 서술어 (형용사)	그녀는 예쁘다.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를 필요로 함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타동사)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주어 + 보어 + 서술어 (되다/아니다)	은아는 교사가 되었다.
	주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동건이는 우성이와 닮았다.
세 자리 서술어 : 주어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로 함	주어 + 필수적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수여동사
	주어 + 목적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철수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본용언 + 보조용언
	주어 + 목적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아버지는 승모를 사위로 삼았다.

[선택지 해설]

13. ④

정답해설 : 답은 ④야. 먼저, 관형사형 어미란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용언이 문장에서 관형어, 즉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으)ㄴ, -던, -는, -(으)ㄹ’ 등이 있어. 이때, 관형사형 어미는 품사와 시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쓰이는 게 보통이야. 이 문제에서는 동사에 붙고,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인 ‘-는’이 용언의 어간 ‘가’와 ‘믿-’에 붙어서 두 동사가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런데, ㉠의 ‘가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는 의미이며, ‘가는’은 이동하는 ‘동작’의 진행이 맞아. 하지만, ㉡의 ‘믿다’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의미이며, ‘믿는’은 ‘동작’의 진행이 아닌 ‘그렇게 여기는 상태’의 진행이야. 그래서 ④의 선지는 틀렸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 보자. 해당 문장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인 겹문장이야. 먼저, 안은 문장은 ‘나는 소식을 들었다’이며, 안긴 문장은 ‘철수가 온다’야. 이때, 안긴 문장인 ‘철수가 온다’는 문장의 종결어미인 ‘-다’를 유지한 채로 그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뒤에 오는 체언인 ‘소식’을 꾸며주는 동격 관형절이야. 그러므로, 절인 ‘철수가 온다’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는 선지의 내용은 맞아.

②를 살펴 보자. 의존 명사는 관형어가 반드시 앞에서 의존 명사를 꾸며줘야 하는 것 알지? 그런데, 의존 명사 중에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 -는, -(으)ㄹ’을 붙인 관형어를 가지는 경우 제약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 그 예시들은 위의 자료에서 확인해 보고 지금은 ②에 나타난 예시를 보자. 의존명사 ‘따름’은 앞에 ‘기쁨’이라고 용언의 어간 ‘기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붙은 경우는 성립하지만,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고 있어. 즉, 의존명사 ‘따름’은 ‘기쁨’처럼 어미가 ‘-(으)ㄹ’인 관형어의 수식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②번 선지는 맞아.

③을 살펴보자. ㉠의 ‘신발의’, ㉡의 ‘그의’는 모두 체언 뒤에 관형격조사 ‘의’가 붙어서 각각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의’를 빼보자. 먼저, ‘신발의’의 ‘의’를 빼볼게. 그럼, ‘신발 밀창’이 돼. 의미의 변화나 신발이라는 명사의 기능에 변화가 있어? 없지. 그대로, ‘밀창’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 명사 단독도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의 ‘그의’에서 ‘의’를 빼보면 ‘그 멋진 모자’가 돼. ‘그의 멋진 모자’에서 ‘그’는 관형격 조사 ‘의’를 뒤에 가지므로, ‘인칭 대명사’였어. 하지만, ‘의’가 빠지면, ‘그’는 뒤에 오는 ‘모자’를 수식하는 관형사가 돼. 즉, ‘듣는 이와 가까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관형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알겠어? ‘그의 멋진 모자’는 ‘그’라는 사람이 가진 멋진 모자라는 의미이지만 ‘그 멋진 모자’는 듣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혹은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멋진 모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를 생략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과 달리 ㉡은 ‘의’를 생략할 경우 의미가 달라진다는 ③의 선지는 맞아.

⑥를 살펴보자. 자, ㉠의 ‘재로’는 뒤에 오는 용언이자 서술어 ‘되었다’를, ㉡의 ‘한’은 뒤에 오는 체언 ‘양복’을 꾸미는 것을 보니 각각 문장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부사어’, ‘관형어’인 걸 알겠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생략을 해도 문장의 성립에 아무 문제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기억해야 해.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야. 그럼 각 문장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아보자. 먼저, ㉠의 ‘되었다’는 ‘-가 -으로 되었다’라는 문형을 가진 서술어로, 서술어 이외에 주어와 부사격조사 ‘-(으)로’가 붙은 부사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서술어야. 즉, ‘재로’는 체언 뒤에 부사격조사 ‘-(으)로’가 붙은 필사적 부사어로,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아서 생략이 불가능해! 반면, ㉡의 ‘한’은 관형어로 수식의 기능만 할뿐, 서술어의 자릿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생략이 가능해. 즉, ‘재로’는 ‘한’과 달리 문장에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⑥은 맞는 말이야.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시 [33~37번 지문][이상, '거울']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알아듣지못하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95) #수능특강 문학 사용설명서(p75) 참고하기

[읽기 전] '〈보기〉마저 어렵다면, 이해를 포기하자. 억지로 이해하기 위해 나의 생각을 끼워 넣지 마라.'

<보기>						
(가)의 화자는 '거울속의나'를 관찰함으로써 '거울속의나'와 거울 밖의 '나'가 분열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분열된 자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화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거울 밖의 '나'</td> </tr> </table>	화자	거울 밖의 '나'	-----[관찰]----->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열된 자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거울 속의 '나'</td> </tr> </table>	분열된 자아	거울 속의 '나'
화자						
거울 밖의 '나'						
분열된 자아						
거울 속의 '나'						

직독 : 지문 차분히 읽기 [눈에 띄는 시어(구) 파악 → 시적 상황, 화자(대상)의 정서, 태도]	
딱한 귀	말을 알아듣지 못함 ⇨ '거울 밖 ↔ 거울 속 단절' [상황]
원손잡이	1. 거울 밖의 '나'와 반대로 보임 2. 약수를 모름 = 약수를 할 수 없음 ⇨ '거울 밖 ↔ 거울 속 단절' [상황]
퍽 섭섭하오	안타까움 ⇨ [정서]

[읽는 중] '〈보기〉를 통해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화자의 분열된 두 자아라는 것을 알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자.'

거울속에는 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 거울 속의 세계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단절 ①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약수를받을줄모르는—약수를모르는원손잡이오 → 단절 ②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 거울의 이중적 기능 :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를 [단절시키는 기능] ↔ [만나게 하는 기능]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 자아 분열의 심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 또 꽤 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 자아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

- 이상, 「거울」 -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독해 포인트 in 사용 설명서			
<p>이 시는 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대인의 자아의 단절과 소외, 분열로 인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거울을 통해 현실적 자아인 '거울 밖의 나'가 내면적 자아인 '거울 속의 나'를 의식하고 관찰하며, 소통과 화해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는데, 이를 통해 두 자아의 단절과 분열을 표현하고 있다.</p>			
EBS 연계 POINT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거울'의 속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거울</td> <td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실에 있는 자아인 '거울 밖의 나'가 내면적 자아인 '거울 속의 나'를 투영해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 또꽤뵈았소 2. 대상에 대한 연결과 차단의 이중적 기능 ⇒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td> </tr> </table>	거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실에 있는 자아인 '거울 밖의 나'가 내면적 자아인 '거울 속의 나'를 투영해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 또꽤뵈았소 2. 대상에 대한 연결과 차단의 이중적 기능 ⇒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실에 있는 자아인 '거울 밖의 나'가 내면적 자아인 '거울 속의 나'를 투영해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 또꽤뵈았소 2. 대상에 대한 연결과 차단의 이중적 기능 ⇒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표현상의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시의 율격을 파괴함으로써 분열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2. 독백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거울'을 통해 성찰하는 화자 자신의 내면을 드러냄 3.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거울 속의 화자와 거울 밖의 화자와의 단절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냄 ⇒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극 [33~37번 지문] [이근삼, '원고지']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37) #수능특강 문학 사용설명서(p214) 참고하기

[전체 줄거리]
<p>주인공인 교수는 사회와 가정에서 모두 구속을 받아 피곤에 지쳐 있다.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 찬 가족과 처의 추궁으로 인해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듯한 혼란함을 겪는다. [지문 출제 부위] 감독관과 처는 교수에게 계속 번역을 독촉한다. 교수는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천사를 만나 꿈을 찾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감독관은 다시 번역을 독촉하고 교수는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p>

[읽기 전] '〈보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작품 내의 '의미'를 파악한다.

<보기>						
<p>「원고지」의 인물은 이름이 아니라 직업이나 역할 등으로 불리며, 일상에 매몰되어 기계처럼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파편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인물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통해 이 작품은 개성을 잃어버린 개인, 소원한 가족 관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등을 풍자하고 있다.</p>						
<p>작품의 주요 특징</p>	<p>⇒</p>	<p>⇒</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물에 대한 묘사</th> </tr> </thead> <tbody> <tr> <td> 1. 이름X → 직업이나 역할로 불림 2. 인물의 반복적인 행동 3. 파편적인 언어의 사용 </td> </tr> </tbody> </table>	인물에 대한 묘사	1. 이름X → 직업이나 역할로 불림 2. 인물의 반복적인 행동 3. 파편적인 언어의 사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풍자</th> </tr> </thead> <tbody> <tr> <td> 1. 개성을 잃어버린 개인 2. 소원한 가족 관계 3.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td> </tr> </tbody> </table>	풍자	1. 개성을 잃어버린 개인 2. 소원한 가족 관계 3.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인물에 대한 묘사						
1. 이름X → 직업이나 역할로 불림 2. 인물의 반복적인 행동 3. 파편적인 언어의 사용						
풍자						
1. 개성을 잃어버린 개인 2. 소원한 가족 관계 3.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읽는 중] - 설명을 보기 전에 차분히 가볍게 읽어보세요.

<p>(플랫폼 방의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철쇄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 헤치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아홉 시를 친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하였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흥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욕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 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니! 그렇게 별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처: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을 쪽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넣어 놓는다. 그리고) 처: 삼백 환!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p>

처: 육백 환! (이어) 구백 환!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진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처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의 여드름을 짠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 처의 요란스러운 셈 소리가 3천 환을 훨씬 넘었다.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처: 왜 그러세요?

교수: 참 신기한 일이야.

처: 삼천 환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교수: 이 원고지 말이오. 다 이백 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백구십 자 칸밖에 안 들었어. 열 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는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해.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도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 같은 시절이었습시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思考)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事故)가 난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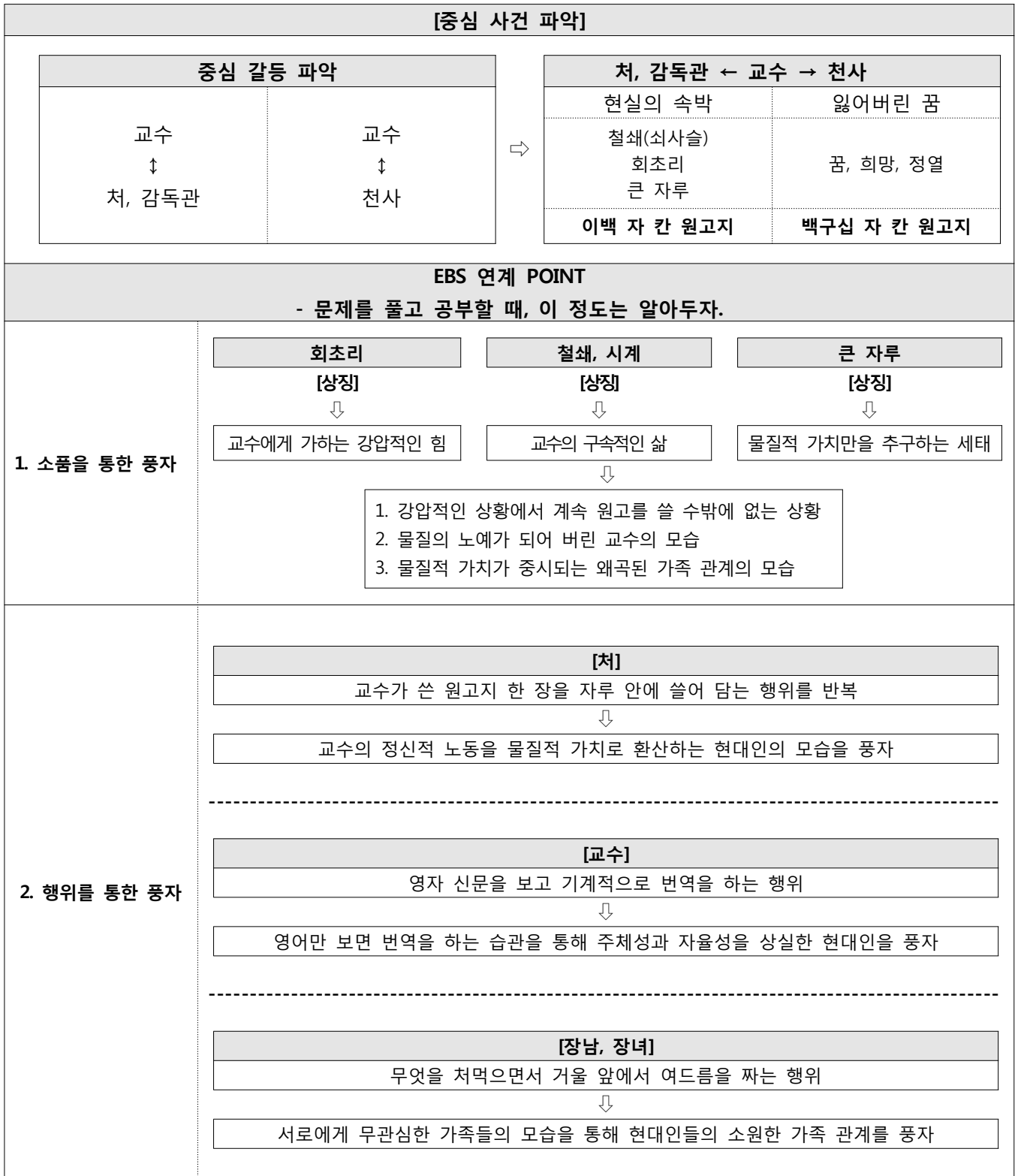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 이근삼, 「원고지」 -

#[인물 분석] (EBS+한·교·평)

교수	#주체성을 상실한 현대인 #현실에 속박된 존재 #현실에 속박된 자아 vs 벗어나고자 하는 자아] 분열
처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 #교수를 속박하는 존재 #교수의 정신적 노동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600환!)
감독관	#관념적 인물 #회초리 #교수를 독촉하는 존재
천사	#관념적 인물 #과거 교수자신의 모습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수의 자아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독서 지문 총평]

※ 이번 주는 지문 상세 분석과 학생 분석 예시 지문이 다릅니다.

[16~19] 네오리얼리즘

- ① 전반적으로 정보량은 많지 않으며, 개념이 많지 않으므로 차분히 읽을 것.
- ② 네오리얼리즘의 특징과 해당하는 기법을 잘 각인하며 내려가면 될 듯.
- ③ ‘무방비 도시’와 ‘자전거 도둑’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잘 보였다면 편하게 접근했을 것.

[27~32] 이자 지급 방식과 금리 스와프(지문 상세 분석)

- ① ‘경제’는 ‘개념’과 ‘관계’이다. 어떤 지문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중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내려간다.
- ② 분명히 정보량이 많고, 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힘든 것 맞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이러한 경제 개념들을 이해하고 쏟아지는 정보량을 버텨내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렵게 다가왔던 학생들은 상세 지문 분석을 꼭 참고하여 이해해 볼 것!
- ③ 이 지문을 잘 버텨낸 학생들은 중간 중간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며 내려갔다.
- (변동 금리 = CD 금리 + 가산 금리 / 스와프 매입 포지션, 스와프 매도 포지션 / <표>에 비교 우위 표시)
- ④ 사례는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 지문을 읽다가 ‘왜?’라는 의문이 불현듯 들 때 차분히 다시 읽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려가야 한다.(가령, 왜 ‘b-1’인가?)
- ⑤ 워낙 경제 지문의 ‘금리’는 주요 소재로든, 지나가는 용어로든 자주 나오는 소재이다. 익숙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지문 자체는 학생들에게 있어 어려운 것이 맞다. 무엇인가 쏟아지면 식이 되었든 표가 되었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사례는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노력하자.
- ⑥ 지문도 힘들었는데, 문제도 <보기> 문제가 어려웠다. 30번은 경우의 수를 줄이는 사고가 필요한데, 오답률 best 5에서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지문과 <보기> 문제로 인해 과하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수능이 아니니까.

[38~42]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학생 분석 예시)

- ① 차분하게 잘 정리하며 내려가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급하게 읽어 내려가면 힘들어진다.
- ② 1, 2문단에서는 개념을 잘 읽어 내려가고 공통점, 차이점을 잘 구분하는 것이 좋다.
- ③ 2문단 뒤쪽 ‘한편’ 이후, 3문단 내용의 경우 <그림>을 잘 보고 지문에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해본다면 이해도 되고,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 ④ 5문단 ‘한편’부터는 명확하게 각인하고 내려간다. 그 이전까지 이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집중력이나 독해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전위, 중위, 후위 순회의 순서를 각인하고 6문단 사례의 경우 차분히 내려가면서 문제 풀 때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쉽게 생각하자. 사례를 통해 이해하거나 돌아와서 대응할 줄 알면 되는 것이다.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27~32번 지문][이자 지급 방식과 금리 스와프]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들이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 금융 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일정한 기간마다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1년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차입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을 통상적으로 금리 혹은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업들은 ㉠고정 금리 방식이나 ㉡변동 금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다. 전자는 자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약정한 고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통화량이나 물가 수준에 따라 변하는 시중 금리에 연동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금융 기관 간의 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CD 금리를 기준 금리로 활용한다. 즉 시중 금리인 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변동 금리 방식의 이자율로 정한다.

기업들은 시중 금리의 변동 방향을 예상하여 이자 지급 방식을 변경하길 원할 수 있다. 가령 변동 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기업이 시중 금리의 인상을 예상하면 고정 금리 방식으로 변경하길 원할 것이다. 이때 기업들은 변경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처음에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고 새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자사와 반대 방향으로 이자 지급 방식을 변경하길 원하는 기업과 금리 스와프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금리 스와프란 두 회사가 이자 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고정 금리 방식과 변동 금리 방식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정 금리 방식을 변동 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장을 ‘스와프 매입 포지션’, 변동 금리 방식을 고정 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장을 ‘스와프 매도 포지션’이라고 한다. 매입 포지션의 기업과 매도 포지션의 기업이 금리 스와프를 체결하면, 단독으로 이자 지급 방식을 바꿀 때보다 이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스와프는 이미 자금을 차입한 기업 간에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만간 자금을 차입하려는 기업끼리도 각자의 여건과 예상에 따라 금리 스와프 계약을 맺어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금융 기관 등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신용 평가 기관에서 정한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를 달리 책정한다. 그리고 신용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고정 금리든 변동 금리든 금리가 더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금리 스와프 계약을 추진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한 기업 A와 두 조건이 모두 불리한 기업 B가 계약을 할 때 두 기업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금리 스와프의 특징이 있다. 다만 두 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A가 B보다 두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하다고 할 때, 한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유리함의 정도가 더 커야 한다. 가령 A가 B보다 고정 금리는 3%, 변동 금리는 1% 더 낮은 조건으로 차입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금리 차이가 더 큰 고정 금리 방식에서는 A가 B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고, 금리 차이가 더 적은 변동 금리 방식에서는 B가 A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한다. 둘째, A와 B는 자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보다 상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을 선호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충족되었다고 가정하면, A와 B에 각각 책정된 금리 조건은 <표>와 같고 A와 B는 동일한 차입금에 대해 금리 스와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입금은 이미 빌린 것일 수도, 앞으로 빌릴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각자가 비교 우위에 있는 방식으로 각자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이미 빌린 것으로 간주하자.

	A	B
고정 금리	$\alpha\%$	$\alpha + 3\%$
변동 금리	$\beta\%$	$\beta + 1\%$

<표>

이제 B는 고정 금리 $\alpha\%$ 에 따른 이자를 A에 주고, A는 변동 금리 $\beta - 1\%$ 에 따른 이자를 B에 주는 금리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하자. 이때 $\alpha\%$ 와 $\beta - 1\%$ 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금리 스와프의 결과 B는 자사에 책정된 고정 금리보다 3%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를 A에 지급하는 동시에 자사에 책정된 변동 금리, 즉 자사가 거래 은행에 이자를 지급할 때의 금리보다 2%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를 A로부터 받게 된다. 이는 금리 스와프를 맺지 않았을 때에 비해 3% 낮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2% 낮은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B는 자사에 책정된 고정 금리보다 1% 낮은 고정 금리($\alpha + 2\%$)로 차입금을 빌린 셈이 된다. 그리고 A는 자사에 책정된 변동 금리보다 1% 낮은 변동 금리($\beta - 1\%$)로 차입금을 빌린 셈이 된다. 이는 A와 B가 단독으로 각자가

선호하는 이자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비해 1%씩 낮은 금리를 이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때 두 기업의 금리 감소분의 합은 2%이다. 그리고 이 2%는 두 기업에 각각 책정된 고정 금리 간의 차이인 3%에서 변동 금리 간의 차이인 1%를 뺀 값과 같다. A와 B가 금리 스와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금리 감소분의 합은 이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는 A와 B가 1%라는 동일한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누리지만, 상호 협의에 따라 어느 한쪽이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다. 이처럼 금리 스와프는 쌍방에게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㉗시중 금리의 변동 방향이나 변동 폭이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금리 스와프 계약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기업들이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 금융 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일정한 기간마다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1년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차입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을 통상적으로 금리 혹은 이자율이라고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경제 지문의 첫 문단은 어떤 영역의 첫 문단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차분하게 꼭꼭 씹어 읽으면서 내려갑니다. 제시된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읽으면 밑줄 친 부분들은 들어올 것입니다. 기업들이 금융 기관(은행 등)에서 돈 빌리면 이자를 내야하고, 그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금리 혹은 이자율이라고 한답니다. 개념 정보입니다. 경제는 개념과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 이자율이라는 단어는 챙깁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걱정이 되어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1) 차입하면 = 빌리면

→ '차입하면'이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면 '빌리면'으로 바꿔 읽으세요.

2) 금리 = 이자 or 이자율

→ 이 정도는 우리 그냥 알아둡시다. 학생들이 금리가 이자율과 같은 개념인지 몰라서 엄청 틀렸던 적이 최근에 있었지요.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23번 문항이었습시다.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려면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하는데, 기준 금리라는 말과 이자율이 같다고 생각하지 못해 그 해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나는군요. 궁금하시면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㉘고정 금리 방식이나 ㉙변동 금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다. 전자는 자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약정한 고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통화량이나 물가 수준에 따라 변하는 시중 금리에 연동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금융 기관 간의 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CD 금리를 기준 금리로 활용한다. 즉 시중 금리인 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변동 금리 방식의 이자율로 정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절대 안 까먹을 단어 두 개 나왔습시다. 고정 금리 방식이나 변동 금리 방식은 우리가 안 까먹죠. 각각의 개념 정보를 챙깁니다. 사실 이미 용어 자체에서 이미 차이가 보입니다. 고정 금리 방식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내는 것이고, 변동 금리 방식은 계속 바뀌나 봅니다. 그 와중에 변동 금리 방식은 정리 가볍게 해둡시다. 식이니깐요.

변동 금리 방식 = CD 금리 + 가산 금리

-----1문단

기업들은 시중 금리의 변동 방향을 예상하여 이자 지급 방식을 변경하길 원할 수 있다. 「가령 변동 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기업이 시중 금리의 인상을 예상하면 고정 금리 방식으로 변경하길 원할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사례로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변동 금리로 빌린 기업이 시중 금리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고정으로 바꾸고 싶겠지요. 이 정도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읽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네요. ① 고정 → 변동 / ② 변동 → 고정

이때 ①기업들은 변경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처음에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고 새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②자사와 반대 방향으로 이자 지급 방식을 변경하길 원하는 기업과 금리 스와프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앞으로 기출에서 이런 흐름의 문장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장에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결국 글의 흐름과 관련되는 문장인데요. 밑에 보기 전에 위의 문장 딱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스스로 대답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글의 흐름은 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 될까요? ②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 될까요? 답은 명확하죠.

예를 들어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꾸고 싶은 기업들의 경우, 일단 변동 금리 방식으로 돈 빌려서 그것으로 고정 금리 방식으로 빌렸던 것을 갚는 방식으로 이자 지급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과 금리 스와프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 스와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겠지요. 이게 흐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끼리의 금리 스와프 계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힘을 쏟으면 됩니다.

-----2문단

금리 스와프란 두 회사가 이자 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고정 금리 방식과 변동 금리 방식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정 금리 방식을 변동 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장을 ‘스와프 매입 포지션’, 변동 금리 방식을 고정 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장을 ‘스와프 매도 포지션’이라고 한다. 매입 포지션의 기업과 매도 포지션의 기업이 금리 스와프를 체결하면, 단독으로 이자 지급 방식을 바꿀 때보다 이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스와프는 이미 자금을 차입한 기업 간에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만간 자금을 차입하려는 기업끼리도 각자의 여건과 예상에 따라 금리 스와프 계약을 맺어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금리 스와프의 개념은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두 회사가 이자 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스와프 매입 포지션과 스와프 매도 포지션이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기억력이 엄청 좋아서 나중에 헛갈리지 않을 것 같다면 상관 없습니다만, 이런 부류의 문장은 나중에 고정에서 변동인지, 변동에서 고정인지 헛갈릴만한 문장이거든요. 저는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제 시험 때 우리 예쁘게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① 고정 → 변동 : 매입 포지션 / ② 변동 → 고정 : 매도 포지션 → 이 정도를 정리하면 조금 깔끔해질 것입니다.

금리 스와프란 매입 포지션의 기업과 매도 포지션의 기업이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군요.

-----3문단

그런데 금융 기관 등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신용 평가 기관에서 정한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를 달리 책정한다. 그리고 신용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고정 금리든 변동 금리든 금리가 더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금리 스와프 계약을 추진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흘러갈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한 기업 A와 두 조건이 모두 불리한 기업 B가 계약을 할 때 두 기업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금리 스와프의 특징이 있다. 다만 두 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금리 스와프에서도 이것에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한 A와 모두 불리한 B가 계약을 할 때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살짝 벗어난 것이지요. 이런 경우, 출제자가 이것을 문제로 출제할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만 그렇다고 던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즉 우리는 둘 다 유리한 쪽과 둘 다 불리한 쪽이 모두 혜택을 보는 상황에 주목하고 이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읽을 때를 기준으로요.

우선 첫 문단에서 고정 금리 방식과 변동 금리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변동 금리 방식은 식으로 제시된 것이 있으니 식으로 정리하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 기업끼리의 금리 스와프 계약이라는 것을 파악하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 금리 스와프의 개념을 확인하고, 스와프 매입 포지션, 스와프 매도 포지션을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았듯이 기업 간 금리 스와프 할 때, 둘 다(고정, 변동) 유리한 기업과 둘 다(고정, 변동) 불리한 기업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에 주목하며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4문단

첫째, A가 B보다 두 금리 조건이 모두 유리하다고 할 때, 한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유리함의 정도가 더 커야 한다. 「가령 A가 B보다 고정 금리는 3%, 변동 금리는 1% 더 낮은 조건으로 차입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금리 차이가 더 큰 고정 금리 방식에서는 A가 B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고, 금리 차이가 더 적은 변동 금리 방식에서는 B가 A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한다.(정리) 둘째, A와 B는 자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보다 상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지급 방식을 선호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충족되었다고 가정하면, A와 B에 각각 책정된 금리 조건은 <표>와 같고 A와 B는 동일한 차입금에 대해 금리 스와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입금은 이미 빌린 것일 수도, 앞으로 빌릴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각자가 비교 우위에 있는 방식으로 각자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이미 빌린 것으로 간주하자.

	A	B
고정 금리	$\alpha\%$	$\alpha + 3\%$
변동 금리	$\beta\%$	$\beta + 1\%$

<표>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요건이 두 개가 제시되었습니다. 두 개는 당연히 이해를 했든, 기억이라도 하든 하셔야 합니다. 첫째 조건은 두 금리 조건 중 한 조건이 유리함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실전에서 읽을 때, 성격이 급해서 옆에 단의 표를 보지 못하고, 정리를 해 버렸어요.(제가 표를 그려버렸다는 것입니다πππ 옆에 볼 걸πππ). 여러분들은 표를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표에 어떤 방식에 누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는지는 정리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리 안 해두시면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푸실 때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A사가 B사보다 고정이든 변동이든 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유리함의 정도가 고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고정에서는 A가 비교 우위 / 변동에서는 B가 비교 우위(정리든 표시든 꼭 해주세요. 머리만 쓰지 말고 꼭 손을 씁시다.)

이것을 정리한 상태로 둘째 조건을 읽으면 위에 정리한 것에 바로 살을 붙일 수가 있지요.

고정에서는 A가 비교 우위(A는 변동 선호) / 변동에서는 B가 비교 우위(B는 고정 선호)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두 가지 모두 유리한 A와 두 가지 모두 불리한 B가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문단, 6문단

[참고 사항]

누군가에게는 이 지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위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내려왔다면 마지막 문단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과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납득하고 문제 풀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 ① 일견 복잡해 보이는 것에 괜히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 ② 경제 지문은 개념과 관계이다. 개념은 사례로 이해해주고, 관계는 정리하면서 내려간다.
- ③ 6문단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며 해결할 수 있는 정보량이다.(수능도 이 정도의 정보량은 될 수 있다.) 혹시 실제로 읽을 때 조금 힘들었다면 다시 차분히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해보자.

이제 B는 고정 금리 $\alpha\%$ 에 따른 이자를 A에 주고, A는 변동 금리 $\beta - 1\%$ 에 따른 이자를 B에 주는 금리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하자. 이때 $\alpha\%$ 와 $\beta - 1\%$ 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이 시험지를 함께 검토 봐 준 저희 조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려워 한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B가 고정 금리 α 를 A에게 주는 건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A는 $\beta - 1$ 을 B에게 주느냐는 것이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제게 묻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표>에 B의 변동 금리가 $\beta + 1$ 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 조교가 제게 "선생님 왜 대체 $\beta - 1$ 이예요?"라고 묻자, 저는 정확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주의] 재수 없을 수 있음.) "그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나면, 우리가 왜 $\beta - 1$ 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냐는 것이지요. 우린 그냥 지문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그 순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다르니까 혼동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문장을 좀 봐주세요. ' $\alpha\%$ 와 $\beta - 1\%$ 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A사와 B사가 그냥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그게 왜 그런지 제게 물으시면 저는 당황할 수밖에... 굵적a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재롱 한 번 부러봤어요.)

그래도 굳이 궁금하실 테니 그냥 경제적인 것 말고 상식적으로 설명은 드러볼게요. 지금 이 상황은 A가 모두 유리하고 B가 모두 불리한 상태에서 A가 조금 더 이득 보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B는 모두 불리하니까 이득 당연히 보고 싶겠지요. 변동 금리에 비교 우위가 있는 B가 고정 금리를 선호해야 두 회사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5, 6문단 정리 참고) B는 A의 고정 금리인 $\alpha\%$ 를 A에게 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사는 상황이 다르지요.

	A	B
고정 금리	$\alpha\%$	$\alpha + 3\%$
변동 금리	$\beta\%$	$\beta + 1\%$

<표>

A사는 고정 금리에 비교 우위가 있고, 변동 금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A사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그냥 혼자 변동 금리해도 $\beta\%$ 만 내면 되는데 B에게 굳이 $\beta + 1\%$ 를 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금리를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사와 B사가 협의해서 "B야. 너네 $\beta + 1\%$ 내야 한다며, 우리가 $\beta - 1\%$ 줄게."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지문에서 정해진 대로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왜 대체 $\beta - 1$ 이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스와프의 결과 B는 자사에 책정된 고정 금리보다 3%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를 A에 지급하는 동시에 자사에 책정된 변동 금리, 즉 자사가 거래 은행에 이자를 지급할 때의 금리보다 2%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를 A로부터 받게 된다. 이는 금리 스와프를 맺지 않았을 때에 비해 3% 낮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2% 낮은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B는 자사에 책정된 고정 금리보다 1% 낮은 고정 금리($\alpha + 2\%$)로 차입금을 빌린 셈이 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여기까지가 잘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차분히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됩니다. B사는 A에게 α 를 주었으므로 3%를 덜 냈습니다. 대신 A에게 $\beta - 1$ 를 받았으므로 2%의 변동 금리를 더 내야 하죠. 즉 합치면 $\alpha + 2\%$ 가 됩니다. 혹시 만약에 이게 왜 고정금리 $\alpha + 2\%$ 로 빌린 셈인지 헷갈린다면 임의의 숫자(A사 고정 1%, 변동 5%)를 넣어보세요. 단순 숫자계산입니다.

그리고 A는 자사에 책정된 변동 금리보다 1% 낮은 변동 금리($\beta - 1\%$)로 차입금을 빌린 셈이 된다. 이는 A와 B가 단독으로 각자가 선호하는 이자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비해 1%씩 낮은 금리를 이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때 두 기업의 금리 감소분의 합은 2%이다. 그리고 이 2%는 두 기업에 각각 책정된 고정 금리 간의 차이인 3%에서 변동 금리 간의 차이인 1%를 뺀 값과 같다. A와 B가 금리 스와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금리 감소분의 합은 이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는 A와 B가 1%라는 동일한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누리지만, 상호 협의에 따라 어느 한쪽이 금리 감소분의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다. 이처럼 금리 스와프는 쌍방에게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개시중 금리의 변동 방향이나 변동 폭이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금리 스와프 계약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위까지 이해가 됐다면 다 들어올 말입니다. 결국 A 입장에서는 B에게 고정 금리 $\alpha\%$ 는 받았고, B에게 $\beta - 1\%$ 을 주었으므로 자신의 변동 금리인 β 에서 1%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A, B사 모두 1%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두 기업 금리 감소분의 합은 2%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 고정 금리 차이 3%에서 변동 금리 차이인 1%를 뺀 값과 같았네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읽어 내려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금리 감소분의 합은 이 값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기억하고 내려갑니다. 즉, 위에서 왜 $\beta - 1\%$ 인지 의문 갖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읽었으면 더하기, 빼기를 통해 우리가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왜? 왜 그렇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궁금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에는 일단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려가야 합니다.

[참고]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출제 '열기관과 열효율'(4문단)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면서 카르노의 열기관이 왜 대체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카르노의 열기관은 잘못된 거야!'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다음 주에 현역 학생들 혹은 N수 중 일부 학생들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현역 학생들에게는 고3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온전히 측정할 수 있는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수능은 아니니까요.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은 이것이 수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본 시험이라면 하루 정도 스스로 뿌듯해하면 될 일이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하루쯤 우울하다가도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 점검해보면 될 일입니다. 제가 매주 보게 되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한교평 한수 모의고사와 분석지를 통해 만나게 될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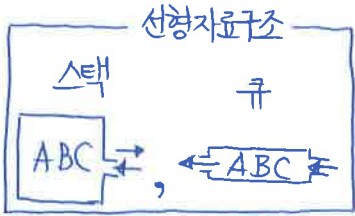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니 흘려버려라.'가 아니라,

이것 역시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니 지금의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결과에 자만하고 방심할 것이 아니요,

지금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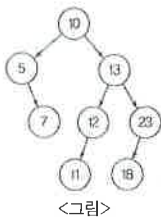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 공학에서는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크게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로 나뉜다. 선형 자료 구조는 자료의 항목들이 일렬로 나열된 형태의 자료 구조로, 대표적으로는 '스택'과 '큐'가 있다. 스택은 자료를 입력하는 입구와 자료를 인출하는 출구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상자 형태의 자료 구조이고, 큐는 자료의 입구와 출구가 양쪽에 별도로 있는 관(管) 형태의 자료 구조이다. 따라서 스택에서는 나중에 입력된 자료일수록 먼저 인출되고 큐에서는 먼저 입력된 자료일수록 먼저 인출된다. 가령 스택과 큐에 각각 목록 [A, B, C]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둘 다 'A', 'B', 'C'의 순서로 저장되지만, 이후 자료 하나를 인출하면 스택에서는 'C'가 나오고 큐에서는 'A'가 나온다.

비선형 자료 구조는 자료들을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 방식의 자료 구조이다. 비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자료 구조는 트리이다. 트리는 회사의 조직도처럼 각 항목들이 상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자료 구조이다. 트리에서 각 항목이 입력될 수 있는 장소를 노드라 하며, 각 노드의 바로 아래에 연결된 노드를 자식 노드, 바로 위에 연결된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한다. 트리에서는 어떠한 노드도 둘 이상의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없다. 각 노드의 아래에 죽 연결된 노드들은 자손 노드라 불리는데, 자식은 자손에 포함된다. 한편 트리에서 부모 노드가 없는 노드는 하나뿐으로 뿌리 노드라 부르고, 자식이 없는 노드는 잎 노드라 부른다.

트리 중에서 노드마다 최대 두 개의 자식만 가질 수 있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한다. 이진 트리 중에서는 수처럼 대소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을 탐색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이진 탐색 트리가 널리 쓰인다. 이진 탐색 트리는 각 노드의 값이 왼쪽의 모든 자손들의 값보다는 크고 오른쪽의 모든 자손들의 값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구축된다. 가령 어떤 목록을 이진 탐색 트리로 만들 경우, 목록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차례로 트리에 추가된다. 첫째, 추가할 항목을 뿌리 노드로 이동시킨다. 둘째,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는 경우, 그 자리에 추가할 항목을 입력시킨다. 현재의 노드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빈 노드를 만나 입력시킬 때까지 추가할 항목을 그 노드의 값과 비교하여 그보다 작으면 왼쪽 자식 노드로 이동시키고 그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한다. 셋째, 목록의 모든 항목이 트리에 추가될 때까지 첫째와 둘째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록 [10, 5, 13, 23, 12, 18, 11, 7]을 순서대로 트리에 입력한다고 하자. '10'은 뿌리 노드가 되고 '5'는 '10'의 왼쪽 자식, '13'은 '10'의 오른쪽 자식이 된다. '23'은 '10', '13'과 차례로 비교된 후 '13'의 오른쪽 자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숫자까지 입력되면 <그림>과 같은 트리가 완성된다.

이진 탐색 트리의 탐색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스택과 큐의 공통점/ 차이점

차이

이진트리 C 트리 (상위 개념)

뒷문장의 내용 구체화 + <그림> 보면서 이해

38-5

'11'이 <그림>의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값은 뿌리 노드인 '10'보다 크므로 그 오른쪽 자손 중에 있을 것이고 '13'보다는 작으므로 그 왼쪽 자손 중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11'이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10', '13', '12', '11'을 차례로 탐색함으로써 확인된다. 또 '8'이 트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10', '5', '7'까지 차례로 탐색함으로써 확인된다. 만약 원래의 목록을 순차적으로 탐색한다면, '11'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은 네 번째 탐색이 아니라 일곱 번째 탐색에서 확인되고 '8'이 목록에 없다는 사실은 목록의 모든 항목을 다 탐색한 후에 확인된다.

한편, 이진 트리의 항목들을 일정한 순서로 전부 출력하는 방법으로는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 등이 있다. 전위 순회는 뿌리 노드, 왼쪽 자손, 오른쪽 자손의 순서로 출력하고, 중위 순회는 왼쪽 자손, 뿌리 노드, 오른쪽 자손의 순서로 출력하며, 후위 순회는 왼쪽 자손, 오른쪽 자손, 뿌리 노드의 순서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그림>의 이진 탐색 트리에 전위 순회를 적용하면, 뿌리 노드인 '10'을 먼저 출력하고 그다음에 '10'의 왼쪽 자손인 [5, 7]을, 그다음에 '10'의 오른쪽 자손인 [13, 12, 11, 23, 18]을 출력할 것이다. 그런데 왼쪽 자손인 [5, 7] 자체도 트리 구조를 띤 부분 트리이고 이 부분 트리의 뿌리 노드가 '5'이므로 '5'를 먼저 출력하고 '7'을 나중에 출력한다. 이렇게 '10'의 왼쪽 자손을 잎 노드까지 전부 출력하고 나면, 오른쪽 자손인 [13, 12, 11, 23, 18]을 출력하는데, 오른쪽 자손 전체 역시 트리 구조를 띤 부분 트리이므로 뿌리 노드인 '13'을 먼저 출력하고 그다음에 왼쪽 자손 [12, 11]과 오른쪽 자손 [23, 18]을 순서대로 출력할 것이다. 결국 트리의 항목 전체는 '10', '5', '7', '13', '12', '11', '23', '18'의 순서로 출력된다. <그림>의 트리를 중위 순회하면, 왼쪽 자손 [5, 7], 뿌리 노드 '10', 오른쪽 자손 [13, 12, 11, 23, 18]을 차례로 출력하는데, 각각의 부분 트리에서도 왼쪽 자손, 뿌리 노드, 오른쪽 자손의 순서로 출력한다. 그 결과 <그림>의 트리 항목들은 오름차순인 '5', '7', '10', '11', '12', '13', '18', '23'의 순서로 출력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위 순회는 <그림>의 트리 항목들을 '7', '5', '11', '12', '18', '23', '13', '10'의 순서로 출력한다. 각각의 순회 방식은 이처럼 각각 다른 순서로 트리의 항목들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 중 어떤 순서가 자료의 활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순회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1 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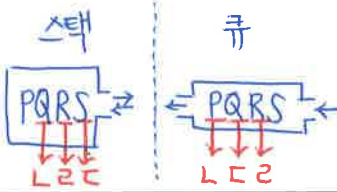
<그림>에 대입

새번문제 역시(근거)

38.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스택과 큐는 자료의 항목들을 상하 관계로 연결한다.
- ② 이진 트리에서는 부모가 둘 이상인 노드도 존재할 수 있다.
- ③ 이진 트리에서 각 노드는 항상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다.
- ④ 큐에 최초로 입력한 자료를 인출하려면 그 자료 다음에 입력한 자료를 모두 인출해야 한다.
- ⑤ 이진 탐색 트리에서 (뿌리 노드의 오른쪽 자손은 언제나 뿌리 노드의 왼쪽 자손보다 큰 값을 가진다.) 이진 탐색 트리의 기본 원리

출수형



3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근거가 모두 1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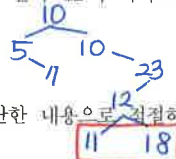
① 비어 있던 스택과 큐에 'P'를 입력한 다음 ㉠ 'Q'를 입력하였다. 그런 후에 ㉡ 자료 하나를 인출하고 나서 ㉢ 'R'을 입력한 다음 'S'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 자료 하나를 인출하고 또 ㉤ 자료 하나를 인출하였다.

- ① ㉠을 수행한 직후 스택과 큐의 항목들은 서로 반대되는 순서로 저장되어 있다. **순서는 동일**
- ② ㉡에 의해 스택과 큐에서 인출되는 항목은 동일하다.
- ③ ㉢을 수행한 직후 스택은 P, R, Q 순서로 저장되어 있다.
- ④ ㉣에 의해 큐에서 인출되는 항목은 'Q'이다.
- ⑤ ㉤을 수행한 이후 스택과 큐에는 동일한 항목이 저장되어 있다. **다른 항목 (P와 S)**

40.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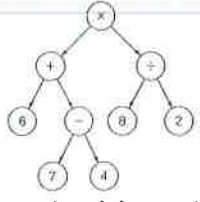
- ① '18'이 <그림>의 트리에 있다는 사실은 네 번째 탐색에서 확인된다. **10, 13, 23, 18 확인**
- ② '14'가 <그림>의 트리에 없다는 사실은 '10', '13', '23', '18'까지 탐색함으로써 확인된다. **10, 13, 23, 18 확인**
- ③ <그림>에서 '13'을 뿌리 노드로 가지는 부분 트리의 **일 노드**는 두 개다. **자식노드가 없는 노드: 11, 18**
- ④ 원리의 목록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5'와 '13'의 순서만 바꾸어 입력하면 <그림>과 다른 트리 구조가 생성된다.
- ⑤ 셋째 항목인 '13'이 '10'으로 바뀐 [10, 5, 10, 23, 12, 18, 11, 7]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그림>과 달리 '12'의 자식 노드가 두 개가 된다.

원래 바뀌서
① 10 ① 10
② 5 ② 13 ③ 5 ③ 13
순서만 달라질 뿐 구조 같다.



41.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수식 트리는 수식의 연산 순서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이진 트리이다. 오른쪽의 트리 T는 수식 '(6 + (7 - 4)) × (8 ÷ 2)'를 표현한 수식 트리이다. T에서 하나의 연산 '(7 - 4)'는 연산자인 '-'를 부모로, 피연산자인 '7'과 '4'를 자식으로 가지는 부분 트리로 표현되고, 이 연산 결과를 포함한 다른 연산 '(6 + (7 - 4))'는 그 부분 트리를 자식으로, '+'를 부모로 가지는 더 큰 트리로 표현된다.



- ① T를 후위 순회하면 맨 처음에 출력되는 항목은 '6'이겠군.
- ② T를 전위 순회하면 네 번째로 출력되는 항목은 '-'이겠군.
- ③ T를 중위 순회하면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항목은 '2'이겠군.
- ④ T를 전위 순회할 때와 후위 순회할 때, '-'는 '4' 바로 다음에 출력되겠군.
- ⑤ T를 중위 순회할 때와 후위 순회할 때, '-'가 뿌리 노드인 부분 트리의 항목 중에서 맨 처음에 출력되는 항목은 '8'이겠군.

왼쪽자식, 뿌리노드, 오른쪽노드
순서
중위순회한 것

42.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커피는 향기도 없고 쓰기만 하구나.
- ② 오늘 배운 데까지 공책에 두 번 써 와야 한다.
- ③ 모든 수단을 써 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구나.
- ④ 공적인 일을 추진할 때에는 역지를 쓰면 안 된다.
- ⑤ 그녀는 노래도 부르고 곡도 쓰는 가수 겸 작곡가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황혼 녘에 나는 누이를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강의 독으로 불러내었다. 강은 이 들의 한복판을 꾸불꾸불 가르며 흐르고 있었다. 대개의 강들과는 반대로 이 강의 수원(水源)은 바다였다. 바다가 썰물일 때면 따라서 이 강의 물도 빠지고 바다가 밀물일 때면 이 강도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다. 이 강가의 무성한 갈대밭 사이에 매여 있는 작은 돌배들은 밀물일 때를 기다려서 떠나고 혹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강이 들의 농업수(農業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연안(沿岸)의 고기잡이라든가에는 꽤 친절한 수로(水路)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은 이 강과 그리고 이 들에 매달려 있었다. 밀물 시간이어서 강물은 바다 쪽으로부터 빠르게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갈대숲 사이에는 부리가 긴 물새들이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간간이 고기들이 강물 위로 펄쩍 뛰어들곤 해서 주위의 정적을 돋우어 주고 있었다. 강물은 황혼 속에서 금빛이었다. 해풍이 펄 세계 불어와서 내 곁에 말없이 앉아 있는 누이의 머리칼을 훑날리고 있었다. 결국 이 황혼과 이 해풍이 누이의 침묵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누이는 도시로 갔었다. 어머니와 내가 누이를 도시로 보냈었다. 그리고 며칠 전 갑자기, 거진 이 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누이가 도시에 가 있던 그 이 년 동안 나는 얼마나 지금 우리 앞에서 지상을 포용하고 있는 이 자연 현상들에게 누이의 평안을 빌었던가. 그러나 도시에서는 항상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활취고 지나갔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빨아먹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찢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에게 저런 침묵을 떠맡기고 갔었을까. 누이는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나와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려 들지 않았었다. 우리는 누이가 지니고 왔던 작은 보따리를 헤쳐 보았다. 그러나 흰 옷 몇 벌과 두어 가지의 화장 도구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걸로써는 누이에게 침묵을 만들어 준 이 년의 내용을 측량해 볼 길이 없었다. 누이의 침묵은 무엇인가의 항거(抗拒)의 표시였다. 우리를 향한 항거였을까, 도시를 향한 항거였을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침묵으로써가 아니라 높은 목소리로 누이

전위순회: X, [+ 6, [- 7, 4]] [- 8, 2]
중위순회: [6, +, [7, - 4]] x [8, ÷ 2]
후위순회: [6, [7, 4, -], +] [8, 2, ÷] x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